



환경안전원 개원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현정

“ 1980년대 국가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밀려 환경문제는 거론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절, 선구적인 환경의식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유해 금속 폐기물의 안전 처리와 환경교육을 위하여 1982년 6월 7일 환경안전연구소(환경안전원의 전신)가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임 원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환경안전원은 국내 환경안전관리의 선도자 역할을 하며 굵직굵직한 일들을 일궈냈고 2007년 6월 7일로 개원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역대 원장님들과 학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환경안전원 개원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 일 시 : 2007. 6. 8(금) 오후 4시

◆ 장 소 : 환경안전원 3층

◆ 행사 일정

- 16:00 ~ 16:30 이정학 원장 인사말 및 내빈 소개
- 16:30 ~ 16:40 김신복 부총장님 축사
- 16:40 ~ 17:10 전임 원장님 격려사
- 17:10 ~ 17:30 기념 케이크 커팅, 샴페인 축포
- 17:30 ~ 18:30 Wine Party

◆ 참석하신 분들

- 부총장님
- 환경안전원 전임 원장 (김준용 교수, 심정섭 교수, 홍성일 교수, 이화영 교수, 이호인 교수, 정태학 교수)
- 환경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환경안전원 원장, 역대 부장, 現 부장, 前·現 직원
- 환경안전원 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교직원
- 과학기술부, 교육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학환경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



이정학 원장님의 개회사



김신복 부총장님의 축사



심정섭 교수님의 격려사



이화영 교수님의 격려사

정진호 부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정학 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개회사와 함께 환경안전원이 25년동안 걸어온 발자취



부총장님과 역대원장님의 “개원 25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를 더듬어보는 순서도 가졌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25년을 돌아보다 보니 ‘환경안전원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구나’ 새삼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개회사에 이어서 김신복 부총장님의 축사와 심정섭, 이화영 전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었다. 환경안전원의 개원 25주년을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 방문하신 부총장님과 지난 25년의 시간을 든든히 지켜주신 전임원장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이렇게 여러 내외빈의 좋은 말씀을 듣고 드디어 “개원 25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과 “삼페인 축포”로 25주년 기념 행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공식적인 기념 행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안전원 직원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와인 파티가 시작되었다. 이정학 원장님이 “안전원만의 특색있는 와인파티”를 강조 하셔서 직원분들이 직접 서래마을까지 찾아가 와인과 치즈, 빵을 구해

왔다. 서래마을까지 가서 양손을 무겁게 치즈와 빵을 사오고 기념 케이크 하나 사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

보고 할 땐 힘이 들고 많이 지쳤지만 막상 먹으니 맛있는 맛이었다. 다행히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거 같아 기쁘기도 하였다.

환경안전원의 개원 25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학내외의 70명의 교수님,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뜻깊은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참석하신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즐거운 자리가 된 듯하여 행사를 준비한 사람의 일원으로 뿌듯하였다.

이는 모두 환경안전원을 관심있게 지켜봐주는 분들과 25년을 한결같이 이끌어주신 7분의 원장님들, 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환경안전원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앞으로 50년, 100년.. 환경안전원이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명실상부한 “환경과 안전의 지킴이”가 되길 기대해 본다.

